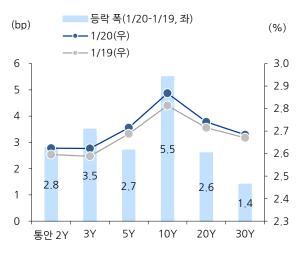
# **Eugene's FICC Update**



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							
		1/20일	1D	1W	YTD		
국내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623%	3.5	-4.1	2.7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68%	5.5	-0.3	1.3	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4.5	22.5	20.7	25.9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78	-7.0	23.0	13.0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7.85	3.0	96.0	93.0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85%	5.6	-9.3	4.6		
	미국채 10년물	4.628%	1.5	-13.2	4.3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34.3	38.5	38.2	34.6		
	독일국채 10년물	2.525%	-0.5	-6.5	16.1		
	호주국채 10년물	4.480%	-1.6	-15.6	11.2		

#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####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전일 미국채 흐름 연동되며 약보합 출발. 위험선호 심 리 강화, 미 신규주택착공건수 호조 등에 영향
- 국고채 10년물 입찰 무난히 마무리된 가운데 한은 경 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소식 소화하며 잠시 강세폭을 확 대하기도 함. 한은, 올해 성장률 전망치 1.6~1.7%로 제시
- 다만 장 마감 가까워지며 재차 약세 전환. 트럼프 행정
  부 출범 앞두고 경계심 짙어진 까닭

####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마틴루터킹데이로 휴장
- 금일 미국 1월 필라델피아 연은 비제조업 활동, 한국 1월 1~20일 수출입, 유로존 1월 ZEW 서베이 등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

FX & Commodity (단위: %,						
		1/20일	1D	1W	YTD	
	원/달러	1,451.70	-0.5%	-1.3%	-1.4%	
	달러지수	108.07	-1.2%	-1.6%	-0.3%	
	달러/유로	1.042	1.4%	2.0%	0.6%	
환율	위안/달러(역외)	7.26	-1.1%	-1.2%	-1.0%	
	엔/달러	155.62	-0.3%	-1.3%	-0.9%	
	달러/파운드	1,233	1.3%	1.3%	-1.5%	
	헤알/달러	6.03	-0.7%	-1.1%	-2.4%	
	WTI 근월물(\$)	77.88	-1.0%	1.7%	8.6%	
상품	금 현물(\$)	2,711.36	0.4%	1.8%	3.3%	
	구리 3개월물(\$)	9,266.00	0.8%	1.9%	5.7%	

#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## 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# 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-6.60원 하락한 1,451.70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40.00원 마감.
-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있었다는 언급을 하면서 달러-원은 상승 출발했으나 곧바로 하락 전화.
- 그간 트럼프 트레이드로 약세가 가팔랐던 위안화도 모처럼 되돌림이 뚜렷했고, 당국도 위안화 절상 곳에 나섬. 달러-원은 점심 무렵 1,448원 선까지 떨어졌지만 오후 들어 1,450원을 재차 상회.
- 장중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월 금통위 당시 경제 상황 평가는 올해 연간 성장률을 기존 전망 1.9% 대비 낮은 1.6~1.7%로 예상함.

#### 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###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취임 및 관세 보류 소식에 급락.
-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쇠퇴를 막을 것이며, 에너지와 국경문제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 밝혔음. 무역 시스템을 즉각 정비하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으나, 과거 공약했던 취임 첫 날 관세 행정명령은 없었음.
- 취임일 관세 보류 소식에 달러는 108선으로 급락. 달러원도 역외 시장에서 1,436원대까지 급락.
- 트럼프가 취임 즉시 과격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서 이번주 금요일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. 달러 추가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.